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4) 쉽게 씌어진 시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쉽게 씌어진 시」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기호를 활용하거나 표현상의 특징과 함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밤비', '육첩방', '등불', '어둠', '아침'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에 활용된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윤동주는 194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하던 윤동주는, 요시찰인으로 주목을 받던 연희 전문학교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일경에 체포되고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시인이 유학 생활 중 느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을 담고 있다.
-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담고 있다.
- ③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는 자신의 내면을 침전하듯 들여다보는 바람직한 성찰적 태도를 의미한다.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던 시인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고 있다.
- ⑤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현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 ② ㉠에서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 거리가 먼 지식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③ ㉡에서 '나'는 현실적 자아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④ ㉢에서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두 자아가 화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3. 윗글에서 화자의 자아 인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살았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한다.
- ②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다진다.
- ③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며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고 학업을 마친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최후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 ④ 화자는 유학생으로 소모적인 무의미한 젊은 날을 보내지만, 현재의 부끄러움은 미래의 조국 광복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한다.
- ⑤ 화자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고향에 돌아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암담한 현실로 인식한다.
- ② 2연에서 시인으로서의 괴로운 심정이 드러난다.
- ③ 3~4연에서 시대 상황에 적응하려는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 ④ 6연에서 목적 없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이 드러난다.
- ⑤ 7연에서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성적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씩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5. 윗글의 ㉠~㉤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부정적 현실과 자아 성찰의 시간
- ② ㉡: 억압적 상황과 암담하고 답답한 공간
- ③ ㉢: 조국의 광복과 새로운 세계
- ④ ㉣: 암담한 현실과 부정적 상황
- ⑤ ㉤: 두 자아의 화해

신유형

「쉽게 씌어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질투는 나의 힘」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질투는 나의 힘」을 영상화할 때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A]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B]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C]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D]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E]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6.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밤비'와 '육첩방'을 통해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3음보 율격으로 시적 화자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성적 자아 성찰의 모습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반복과 변조를 통해 화자가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현실적 자아와 성숙한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 청년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고백적 어조와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시어의 대비를 통해 시적 자아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재인식으로 인한 절망적 태도가, 변주된 연의 반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⑤ 자기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8. 윗글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울한 현실
- ② 현실 극복 의지
- ③ 화해의 시간
- ④ 자아 성찰의 시간
- ⑤ 조국의 광복

9.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암담한 현실임에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운 정서가 '슬픈 천명(天命)'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B]: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낯은 지식인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C]: 시대 현실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D]: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화자인 '최후의 나'가 '등불'을 통해 희망과 저항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⑤ [E]: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한 화자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도달했음을 '악수'를 통해 알 수 있다.

10. <보기>의 내용 중,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음.

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 청년의 내면을 형상화함.

ㄷ.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표현됨.

ㄹ. 유사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ㅁ. 내면적 자아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줌.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1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할 때, 영상으로 옮기기 위해 계획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 ① 다른 사람을 질투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자조적으로 웃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② 화자를 클로즈업하여 화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한다.
- ③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고 있는 지친 개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두운 화면으로 제시한다.
- ④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밝은 화면을 유지한다.
- ⑤ 오버랩(O.L) 형식을 활용하여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12. 윗글의 ㉠를 영상으로 제작할 때 들어갈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과 창조의 열정만 가득했던 젊은 날 화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
- ② 힘든 줄 모르고 방황했지만, 목표를 이루어 낸 화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
- ③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 누구도 화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담긴 장면

- ④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으로 가득 찬 화자가 타인을 질투하는 상황이 담긴 장면
- ⑤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자조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자기 성찰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고백적 어조를 통해 시 쓰기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젊은 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의 시간을 대상화함으로써 자기반성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형도는 '죽음'과 '기억'을 호출함으로써, 낯설고 불안한 세계에 반응하는 섬세한 자아의 내면을 비정하고도 차분하게 보여 주었다. 그의 시세계는 삶과 현실의 불가항력적 부조리와 무의미에 의해 일그러진 상처를 내면화된 비관주의로 선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그는 오래 망설이며, 서성이며, 늙어가면서, 그러한 소멸의 미학을 내면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보편적 실존의 부조리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그의 시편들이 비극적 세계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 ①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표현에서 낯설고 불안한 세계에 반응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②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라는 진술을 통해 망설이고 서성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라는 고백은 일그러

진 상처를 내면화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

- ④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라는 표현은 자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군.
- 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견지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15~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씩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 상황과 괴리 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 ③ 시인으로서 느끼고 있는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내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현실 상황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감정이입의 대상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자기반성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행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기 고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 속에서의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픈 천명'은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시나 쓸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늪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통해 화자는 시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 ③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며 '홀로 침전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 ④ '최후의 나'는 현실적 자아가 내민 손을 잡는 존재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⑤ '최초의 악수'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아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와의 화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대응 양상이 '시를 적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ㄴ. '늪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행위는 무력한 자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ㄷ. '부끄러운 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민호: 위 작품에서는 자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휘중: 맞아, '밤비, 육첩방'과 같은 부정적 현실에서 안주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 개의 자아 중 (㉠)(이)라고 할 수 있어.

진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표상하며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의미하는 시어인 (㉡)은/는 (㉢)와/과 대비되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수림: 두 자아의 화해는 (㉣)(이)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어.

- | | | | |
|---|--------|----|----|
| | ㉠ | ㉡ | ㉢ |
| ① | 내면적 자아 | 등불 | 위안 |
| ② | 내면적 자아 | 아침 | 눈물 |
| ③ | 내면적 자아 | 등불 | 악수 |
| ④ | 현실적 자아 | 아침 | 눈물 |
| ⑤ | 현실적 자아 | 등불 | 악수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 것이다.

- ① '육첩방'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 중인 화자를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의미하며, ㉠에는 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암울한 시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을 담고 있다.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즉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 ⑤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

2. 정답 ⑤

㉠: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두 자아가 화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일본에서 유학 중인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 ② ㉡: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식을 배우러 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③ ㉢: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④ ㉣: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즉 광복이 아침과 같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두운 현시로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정답 ②

화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악수'를 통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함으로써 미래에 대

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① 윗글의 화자는 1연에서 암울한 현실을 인식한 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현실과 거리가 먼 지식을 배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성찰하고, 9연에서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학업을 마친 후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화자는 현재의 부끄러움이 미래의 조국 광복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⑤ 화자는 악수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으나, 고향에 돌아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4. 정답 ③

3~4연에서는 시대 현실과 괴리된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1연에서 '육첩방', '밤비'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을 자각하고 있는 시인의 괴로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6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을 드러내고, 현실의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7연에서는 자아와 시대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④

㉠: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 ① ㉠: 암울한 현실로,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은 '밤비'이다.
- ② ㉡: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육첩방'이다.
- ③ ㉢: 희망, 저항 의지를 의미한다.
- ⑤ ㉣: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6. 정답 ②

윗글은 3음보의 율격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① '밤비'라는 시간적 배경과 '육첩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의 화자는 반성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8연에서 1연의 반복과 변조(변주)를 통해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연에서 두 자아가 '악수'를 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7. **정답** ④

윗글의 8연에서 1연을 반복 변주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을 드러내며,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은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지식인 청년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윗글은 고백적 어조를 활용해 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해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은 '등불', '어둠' 등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윗글의 화자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처럼 올 아침'을 생각하고 지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낼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8. **정답** ⑤

- ㉠은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즉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 ①, ②, ③, ④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④

- [D]: '최후의 나'는 내면적(이상적) 자아이므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화자가 아니다.
- ① [A]: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을 자각하고 있다.

- ② [B]: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식을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C]: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E]: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악수'를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10. **정답** ⑤

㉠.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 ㉡.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지식인 청년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 8연에서 1연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드러내며, 시상 전환을 통해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마지막 연에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 자신의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 있을 뿐,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11. **정답** ③, ④

- ③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개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 ④ 윗글은 화자 스스로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밝은 화면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 ① 윗글의 화자는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만 매몰되어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윗글의 화자는 고백적 어조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⑤ 윗글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12. **정답** ②

윗글의 화자는 젊은 날의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목표를 이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가득한 열정으로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던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를 통해 화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를 통해 화자가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만 매몰되어 살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데 대한 자조를 확인할 수 있다.

13. **정답** ④

윗글은 고백적 어조를 활용해 타인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으로 열정만 가득했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은 감탄형 어미 '-구나'를 반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에서 추상적인 '청춘'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윗글의 화자는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윗글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방식을 활용해 현재의 자기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이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따뜻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①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 '낯설고 불안한 세계'에 반응하는 젊은 날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를 통해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며 일그러진 상처를 내면화된 비관주의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를 통해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삶이었다는 비관적 인식이 드러난다.

15. **정답** ⑤

윗글의 마지막 연에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① 윗글의 화자는 시대 상황과 괴리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윗글의 1연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윗글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인이 느끼고 있는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④ 윗글은 '등불', '어둠' 등 시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②

윗글에는 감정이입이 활용되지 않았다.

- ① 윗글은 '등불', '어둠' 등을 대비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해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8연에서 1연의 반복과 변주를 활용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윗글은 고백적 어조를 활용해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17. **정답** ④

'최후의 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마지막 연에서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 ① '슬픈 천명'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밖에 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늙은 교수의 강의'와 같은 현실과 거리가 먼 지식을 들으러 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홀로 침전하'듯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⑤ '악수'를 통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드러내고 있다.

18. **정답** ④

- ㄴ. 화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ㄷ. '부끄러운 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ㄱ. '시를 적는 행위'는 암울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19. **정답** ⑤

- (A): 현실적 자아
- (B): 등불
- (C): 악수

20. **정답** ③

- ㄱ. '육첩방'은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공간으로, 식민지 시기 국권을 강탈한 일본에서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 ㄴ.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해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ㄷ. 반복과 변주를 통한 현실 재인식은 윗글의 8연에 드러나 있다.

21. **정답** ④

- '악수'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내적 갈등의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윗글은 상징적 시어를 대조하고 있으나,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윗글은 독백적 어조로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은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해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윗글은 역설적 상황 설정으로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22. **정답** ②

- 화자는 시대 상황과 거리가 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밤비', '육첩방'을 활용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23. **정답** ③

-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 ① '육첩방'은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 ② 화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을 자각하고 있다.
 - ④ 화자가 시를 '쉽게' 쓴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와 시대 현실과의 괴리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 ⑤ 화자가 기다리는 '시대처럼 올 아침'은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즉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24. **정답** ④

- 윗글은 '등불', '어둠', '아침' 등 대립적 이미지의 시